

각종 피부병의 종류와 발생 차단방법

연대 양돈장은 다두 밀집사육을 하고 있으므로 피부병의 예방을 적절히 실행하지 않으면 피부병에 감염되어 성장 지연으로 출하 일령이 단축과 사료 효율이 떨어져 경제적인 손실을 가져오게 된다. 국내에서 문제되고 있는 피부

에 심한 가려움증을 주어 고통과 함께 위축을 일으키는 피부질환이다.

약 2주일 정도 생존한다. 10% 크레오소트, 30%크로포름, 석유 등은 즉시 충체를 죽인다.

1) 형태

아주 작은 기생충으로 성충의 모양은 거의 원형이며 암컷의 크기는 0.45×0.35mm 수컷은 0.24×0.35mm 로 암컷보다 작다.

4) 전염

가. 표피내 약충이나 성충은 피부 표면으로 나와서 다른 돼지와 접촉으로 직접 전염된다.

나. 돈사에 떨어진 자충 및 성충은 1~4일 이내 사멸되지만 이 사이에 직접적으로 감염된다.

2) 생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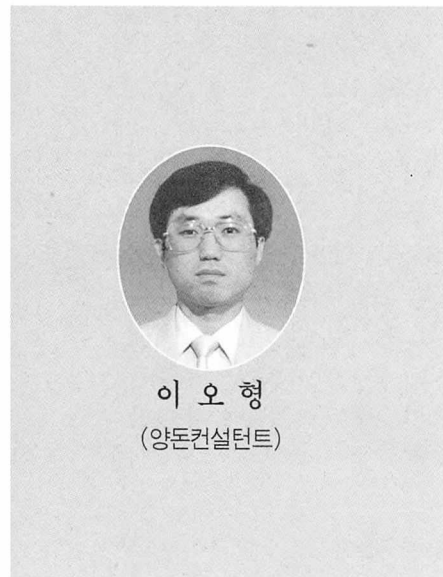
개선충은 일생동안 피부에서 기생하면서 피부 속으로 뚫고 들어가 굴을 만들어 40~50개의 알을 낳는데 1일 3~5개를 산란한다. 이것이 3~5일내 부화하여 유충이 된다. 이 유충은 번식굴에서 표면으로 나온다. 유충은 대부분 죽고 나머지는 새로운 낭을 만들어 2번의 약충기를 지낸 후 4쌍의 다리를 갖는 약충이 된다. 약충이 탈피하여 성충으로 된다. 충난에서 발육이 끝날 때까지는 약 17일이 걸린다.

다. 외관상으로 건강한 돼지도 상당수 귀속에 개선충을 간직하여 감염원이 될 수 있다.

5) 병인론

개선충은 림프를 빨기 위해서 피부를 찌르며 신생 표피세포를 먹기도 한다. 이런 활동은 심한 가려움과 할킴의 원인으로 증상을 악화시켜 피부에 염증을 유발한다.

피부의 염증은 응고되어 딱지를 형성하고 삼출물을 동반한다. 그 결과 피부에 각질화와 결합조직의 증식이 생겨서 피부는 비후되고 추벽이 생긴다. 또한 탈모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 오 형
(양돈컨설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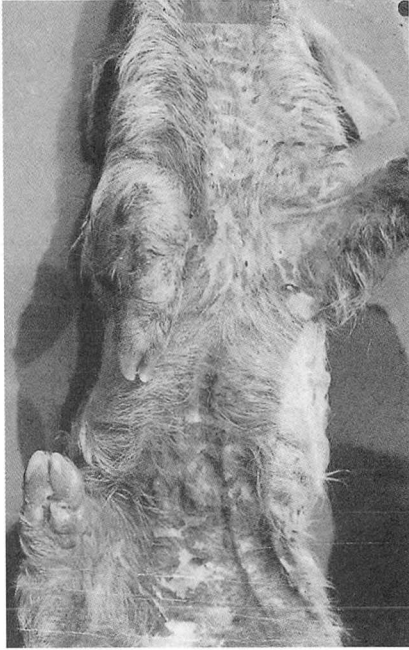
병에 대해서 알아보고 효과적 인 예방법을 알아보고자 한다.

1. 개선충증

개선충증은 양돈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피부병 중의 하나이며 전염력이 강하고 돼지

3) 저항력

건조에 매우 민감하여 건조한 공기에서는 불과 수 일 밖에 못 산다. 습윤한 물질 속에서는



삼출성 표피염에 감염된 자돈, 피부에 딱지가 덮이고 지저분한 급성 전신성 피부병으로 단시간에 발병하는 질병이며 주로 어린 자돈에서 발병하는 피부병이다.

6) 증상
감염 후 21일 전후로 증상이 나타난다. 이 기생충은 주로 귀, 눈 주위와

같이 털이 없는 부위로부터 시작하여 목, 등, 배 등으로 확산된다. 피부는 심한 가려움증과 피부비후 주름이 생겨 건조한 딱지가 형성되며 탈모등이 나타난다. 심하면 출혈, 화농, 궤양 등을 일으킨다. 개선충증의 작은 병소는 숙주의 전신 건강에 거의 영향을 끼치지 않거나 전혀 해를 끼치지 않지만 대대적인 병소는 증체량 감소와 사료 효율 저하와 진행성 쇠약 뿐만 아니라 폐사까지도 초래하

게 된다. 또한 전신 조건이 불량한 동물에서 더욱 잘 생기는 질병이며 늦겨울부터 봄사이에 가장 많이 유행한다. 신선한 병소에서는 붉은 구진 또는 수포와 신선한 삼출물이 있다. 형성되었던 딱지가 떨어져 나가면 그곳에 염증이 생겨 2차적으로 세균감염을 초래하게 된다.

7) 진단

심한 가려움증과 피부의 병변으로 쉽게 진단 할 수 있다.

육안적 검사 : 병소가 생긴 피부를 습윤층이 나타날 때까지 칼로 긁어 까만 종이 위에 놓고 전등을 비추면 하얗게 충체가 기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

현미경 검사 : 병변부를 깊게 긁어 슬라이드에 놓고 10%수산화칼륨액을 몇방울 떨어뜨린 뒤 카바글라스로 덮고 검경한다.

8) 예방 및 치료

감염된 돈방은 깨끗이 청소한 후 BHC용액을 분무해 주거나 생석회로 도포한 후 일정기간 비어 둔다. 정기적으로 구충제를 투여하여 개선충의 서식을 차단한다.

치료는 요즈음 여러가지 약제들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으므로 농장 상황에 맞는 것을 선

택하여 주사해 주거나 살포 해주면 치료 효과는 우수하다. 웅돈은 3~4개월 1회씩 모돈은 분만 2주전에 반드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삼출성 표피염

피부에 딱지가 덮이고 지저분한 급성 전신성 피부병으로 단시간에 발병하는 질병이며 주로 어린 자돈에서 발생하는 피부병이다.

발병 일령 : 포유자돈이나 유자돈에서(1~5주령) 발병

폐사 및 이병률 : 동복이나 돈방 단위로 발병을 하므로 이병율이나 폐사율의 차이가 심하다.

원인 : 기계적인 피부 손상과 세균감염(포도상구균, 연쇄상구균)으로 추측됨

딱지 형성 과정은 전신 체표에 삼출물이 과다분비되어 먼지나 때가 혼합하여 딱지가 형성된다.

1) 증상

처음에는 안면부위(눈꺼풀, 귀)에 물집형성과 삼출물이 형성하여 지저분해지면서 발굽과 같은 연한 부위의 피부로 확산된다. 삼출물에서는 악취가 나며 가피가 형성 후에는 1주일 정도 경과시 치유되거나 만성경과 시에는 전신에 딱지가 덮힌다.

소양증은 심하지 않으나 전신에 가피가 형성된 개체는 탈수, 의기소침, 식욕감퇴로 위축돈이 되어 경제성이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2) 진단

동복 자돈이나 같은 돈방에서 발병하고 암면 부위에서 시작하여 전신에 확산되는데 전신 전파 소고도가 매우 급속하게 진행된다.

3) 예방 및 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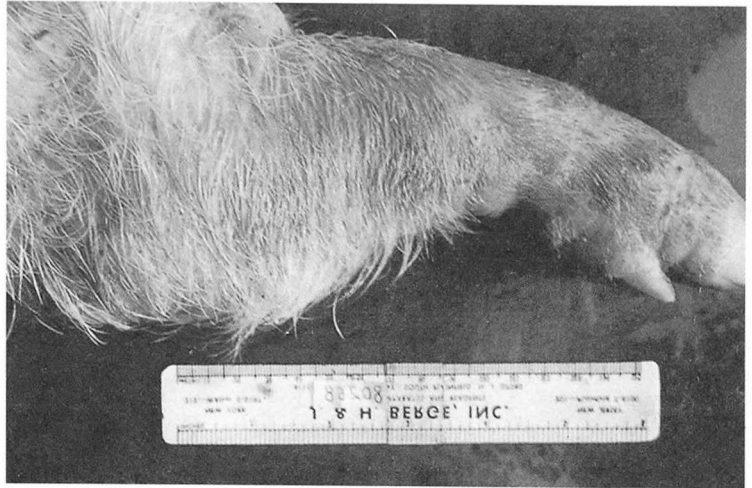
분만시 견치 자르기를 수평으로 하여 투쟁으로 인한 동복 자돈끼리 상처를 줄이고 이동 후 합방시 투쟁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진정제를 사료에 혼합하여 급여하고 소독을 철저히 해 준다.

발병한 개체는 즉시 격리 수용한 후 치료를 하는 것이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으며 다른 개체에 전파를 차단 할 수 있으므로 전염을 예방할 수 있다. 치료는 페니실린제제를 주사해주거나 피부병 구제약제를 전신에 살포해 준다.

3. 피부진균증(돼지버짐)

가려움증이 없으며 피모가 없는 부위에 원형의 반점이 형성하는 질병이다.

1) 원인



곰팡이에 속하는 균이 피부에 기생하여 발병하는 피부병이다.

2) 증상

탈모증이나 습진, 가려움증이 없으며 피모가 없는 복부의 유방이나 배와 귀밑에 주로 발병한다. 형태는 원형의 국한성 반점으로 시작하여 확산하는 피부병으로 병소의 크기는 4~6cm정도이다.

3) 진단

원형의 마른버짐으로 가려움증이 없다.

4) 예방 및 치료

빈 돈사나 돈방을 철저히 소독하여 돈사내 곰팡이가 없도록 관리를 해준다. 소독은 빈 돈사는 포르말린제제로 훈증소독을 하고 돼지를 입식한다.

발병돈은 격리한 후 병소 부

위에 연고제를 발라서 치료할 수 있도록 한다.

4. 부전 각화증

피부 표면에 각질이 형성하며 각질화가 되어 탄력성과 점조성 없이 건조하며 딱딱하고 불규칙한 균열이 특징이다.

1) 원인

사료내 과도한 피탄산, 칼슘 등에 의한 아연흡수장애로 성장저하와 피부의 비염증성 증식성 병변이 생기고 각화현상으로 진행된다

2) 증상

2~4개월령의 성장기에 다발하며 성장지연, 복부부위와 전, 후지 안쪽에 붉은 반점이

부전각화증은 피부 표면에 각질이 형성하며 각질화가 되어 탄력성과 점조성 없이 건조하며 딱딱하고 불규칙한 균열이 특징이다.

3~5mm 형성된 후 짧은 시간 내 딱지가 덮히는 것이 특징이다. 각화는 좌우 대칭으로 나타나는 수가 많으며 2차 세균 감염 없는한 가려움증이 없다.

3) 예방 및 치료

사료내 탄산아연, 황산아연, 산화아연을 사용하여 아연수준이 100ppm 되도록 하여 첨가해준다. 치료는 대사촉진제와 지속성 영양제를 주사해 준다.

5. 피부병의 감별 진단

비듬 일 때에는 피부가 부드럽고 유약하며 윤선은 피부가 비후되지 않으며 곰팡이는 아포가 모간부에서 발견된다. 이에 의해서도 딱지가 생기고 털이 헝클어지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으나 이를 쉽게 찾아낼 수가 있다. 모낭충증은 농포나 비늘모양의 피부염을 일으킨다. 부전각화증은 이유돈에 발생하고 가려움증이 없고 두꺼운 딱지가 생기며 삼출성 표피염은 포유자돈에서만 발생하며 가피가 얇고 가려움증이 없다.

6. 피부병의 예방법

농장내 문제되는 피부병의 예방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이 우선 순위를 정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돈군별 우선 순위는 웅돈, 모돈, 자돈, 비육돈 순으로 피부병 예방을 실시해야 한다.

그 이유는 웅돈은 여러 마리

자돈은 모돈을 통해 복 단위로 감염이 이루어지므로 모돈의 피부병 구제는 자돈 10두 이상 구제하는 효과를 나타낸다.

어린 자돈의 구제는 큰 비육돈 구제보다 효과가 뛰어나며 경비도 적게 들기 때문에 중요하다.

바람직한 피부병 예방은 다음과 같다.

웅돈은 3~4개월에 한번씩 주사제나 내 외부 기생충제제를 주사하여 구충을 실시해 주는 것이 효과적이며 감염된 개체는 주사제나 살포제를 병행하여 완전히 구제한 후에 교배에 사용해야 한다.

모돈은 분만 2주전에 내, 외부 기생충제제로 구충을 완료해야 포유중 감염을 예방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다.

후보돈은 농장 도입후 5일 정도 안정을 취한후 구충을 실시한다.

자돈, 비육돈은 자돈사 전입시나 비육사 전입시 실시하고 감염된 경우는 살포제를 1주일에 2회 살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양돈**



모돈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웅돈 한 마리가 감염되어 있으면 교배를 통해 여러 마리의 모돈에 감염을 시키기 때문이다. 웅돈 한 마리 피부병 구제는 모돈 20마리 이상 구제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매우 중요하다.

모돈이 감염되면 포유 중인